

미혼 남성의 가족 건강성과 젠더역할갈등에 따른 일·가족 지향성에 관한 연구

이 미 래(동국대 석사과정) · 전 미 경(동국대 부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미혼 남성의 가족 건강성 및 젠더역할갈등과 일 지향성 및 가족 지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미혼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및 가족·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족 건강성, 젠더역할갈등, 일·가족 지향성의 경향과, 가족 건강성 및 젠더역할갈등과의 일·가족 지향성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1일~9월 29일 설문조사를 하여, 총 26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19문항과 Lodhal과 Kejner(1965)가 개발한 일·가족 지향성 척도(8문항), Hovestadt et al.(1985)이 제작한 Family of Origin Scale(FOS)의 바탕으로 수정한 최현미(1997)의 원가족 척도(The Family of Origin Scale-55) 중 가족 건강성 척도(16문항), Eisler와 Skidmore(1987)이 개발한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MGRS)’ 척도를 토대로 이수연(2009)이 개발한 ‘한국형 성별역할갈등 스트레스 척도’(46문항)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척도의 신뢰도분석, 기술통계, 대응표본 및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및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남성의 가족 건강성은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사회·인구학적 및 가족·개인적)특성에 따른 차이는 학력, 취업 여부 및 부모와의 대화정도, 관계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 남성은 고학력일수록, 취업을 하지 않은 집단일수록, 부모와 대화정도가 충분하고,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건강성이 높았다. 또한 미혼 남성의 가족 건강성과 가족 지향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혼 남성이 가족을 건강하게 인식할수록 미혼 남성의 가족 지향성은 높아졌다.

둘째, 미혼 남성의 젠더역할갈등 수준은 보통이었으며, 미혼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중 취업여부 및 가족·개인적 특징 중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젠더역할갈등을 줄이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미혼 남성은 취업한 집단 및 부모와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젠더역할갈등 점수가 낮았다. 또한 미혼 남성의 젠더역할갈등을 느끼는 정도가 강할수록 일 지향성은 증가하였지만, 가족 지향성은 감소하였다.

셋째, 미혼 남성의 일·가족 지향성의 전반적인 경향은 일 지향적이기 보다 가족 지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유계숙, 2010; 한지숙, 2007)과 일치하였다. 또 미혼 남성의 일반적 특성 중 현재 이성교제를 하지 않을 경우와 고학력일수록, 월평균수입이 적을수록 미혼 남성은 일 지향적이었으며, 반면 미혼 남성이 부모와 동거를 하지 않을 경우와 어머니와 대화정도가 충분할수록, 부모와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지향성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 미혼 남성은 젠더역할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일 지향성이 높으며,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가족 지향성이 높았다. 따라서 미혼 남성의 일-가족 지향의 균형을 위해서는 젠더역할갈등을 줄이고 가족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